



No. 17 2015 9-10

고대의대 뉴스레터



발행인_김효명 · 발행처_고려대학교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 주소_서울시 성북구 인촌로 73 · TEL_02-920-5794 · E-Mail_hkintheworld@korea.ac.kr 홈페이지_http://medicine.korea.ac.kr · 발행일_10월 1일 · 격월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중·단기 발전계획안 발표 세계 100대 의대 진입 프로젝트

고려대학교 의과대학(학장 김효명)은 구성원 간에 희망을 전하고, 혁신적인 사고를 위한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에 전체 구성원들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동참해 의과대학의 문화를 재창조하고자 '세계 100대 의대 진입 추진'을 목표로 정했다.



안암병원 교수간담회 (9월 14일)

이를 수행하기 위해 교무혁신, 교육정책 수립, 인재 선발 및 육성, 연구지원 활성화, 호의역사로 다섯 개 세부 TFT가 지난 5월 초 출범했으며, 6월12일(금) 문숙의학관 1층 원형강의실에서 중간 보고회를 가졌고, 7월24일(금)~25일(토) 서울 양재동 The-K호텔에서 1박2일로 워크숍을 가졌다.

의과대학은 9월14일(월)~17일(목)에 걸쳐 안암, 구로, 안산 3개 병원, 기초 및 대학원 교수 간담회를 통해 의과대학 중·단기 발전계획안을 소개한 후 구성원과 같이 소통하는 시간을 나눴다.

이번 발표에서 연구역량을 개선하고 인사제도 및 교육제도 보완과 컨트롤 타워 구축의 필요성을 공유했으며, 인력관리 개선을 위해 업적평가 보완을 추진하고 교수개발실 운영 등을 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연구의 중요성에 대해 구성원 모두 공감하고 연구 활성화를 위해 획기적인 연구비 보조와 행정 지원 시스템 정비



TFT워크숍 (7월 24일 ~ 25일)

등 지원과 규제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육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교수학습지원센터를 의학교육센터로 확대개편 할 예정이며, 구성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호의역사실 개실과 심포지엄을 오는 10월27일에 개최하여 고대의대만이 갖는 정신(민족, 박애)을 고양할 계획이다.

고려대학교 의료원 의학발전기금 기부

기간: 2015년 7월 22일 ~ 9월 16일
순서는 기부(약정)일자 기준임

약정일	기부자	구분	약정액
15.07.22	강호	환자지원	2,000,000
15.08.12	이호준	순환기내과학교실	10,000,000
15.08.12	Marvin Chow	소아청소년과학교실	7,000,000
15.08.13	박대진	임상치의학대학원 치과교정학과	1,000,000
15.08.13	홍윤식	장학기금	20,000,000
15.08.17	의학과 85학번	입학30주년 모금	70,000,000
15.08.27	풍평자	안과학교실	1,000,000
15.08.31	최종욱	이비인후과학교실	5,000,000

약정일	기부자	구분	약정액
15.09.01	권혁팔 전영인	실용해부연구소	30,000,000
15.09.02	의과대학 23회 동기회	졸업 50주년	100,000,000
15.09.07	지혜란	의대 38회 장학금	1,500,000
15.09.09	송파재단	장학기금	6,207,000
15.09.10	박영순	의대 38회 장학금	3,500,000
15.09.16	김기섭	이비인후과학교실	10,000,000

호의역사실 개소식 및 심포지엄

“민족과 박애, 고대의대의 거대한 뿌리”

- 로제타 홀 탄생 150주년 기념 심포지엄 -

1부 호의역사실 개소식 2부 호의역사 심포지엄

- 일시 : 2015년 10월 27일(화) 16시
- 장소 : 의과대학 본관 2층 유광사홀

의대생 리포트

여름 방학은 동아리와 함께

붙잡아두고 싶던 여름방학이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 버리고 2학기를 맞이한지도 벌써 한 달이 넘었다. 지난 여름방학, 고대 의대 학생들은 무엇을 하며 보냈을까?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한 방학을 만끽했겠지만 이번 글에서는 고려대 의대생의 방학과 별 수 없는 관계인 '동아리 활동'을 소개하고자 한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는 약 30여개의 동아리가 활동 중에 있으며 그 분야 또한 문화, 학술, 체육 등 다양하다. 모든 동아리를 소개하고 싶지만 지면상의 문제로 이번 글을 통해서는 각 분과 중 한 곳의 여름 방학 활동에 대해 알아보았다.

오케스트라(KUMO)



오케스트라 연주회 전 학생들이 전체 리허설을 진행하고 있다.

2015년 8월 15일 7시, 소월아트홀에서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관현악단 KUMO의 공연이 있었다. 이 날을 위해 오케스트라 학생들은 뜨거운 여름 무더위 속에서 구슬땀을 흘렸다. 여름 방학 동안 동아리방과 강의실에서 총 20번의 연습이 있었고, 7월 말에는 4박 5일의 뮤직캠프를 통해 공연 준비를 하고 친목도 다졌다. 각 연습 때는 우선 약 2시간을 파트 별로 연습을 한 다음, 다같이 모여서 지휘자 선생님과 약 3시간 동안 합주 연습을 했다. 파트는 퍼스트바이올린, 세컨드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관악기로 나누어지는데, 이렇듯 다양한 악기들의 호흡을 맞춰 이번 연주회에서 선보인 곡은 멘델스존의 한여름 밤의 꿈 서곡, 그리그의 페르균티 모음곡, 브람스의 교향곡 4번이다. 오케스트라 연주회에 참여한 박현수(의학과 2학년) 학우는, "여러 파트들과 더불어 하나의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힘들었지만, 그 소리를 완성시켰을 때는 무척 뿌듯함을 느꼈다."라고 했다.

농구부(Satum)

올해 8월 1,2일 양일에 걸쳐 서울, 경기권 8개 의과대학(서울, 가톨릭, 연세, 고려, 중앙, 한양, 순천향, 경희) 농구 대회가 있었다. 이 대회에 참여한 고대의대 농구부 새턴은 방학 기간 농구 훈련을 통해 체력을 단련하고 팀워크도 다졌다. 이번 여름 연습은 6월 22일에 시작하여 대회까지 약 5주간 화정 체육관 보조 경기장에서 이루어졌고, 7월 8일부터 7월 12일 까지는 가평에서 합숙도 진행되었다. 연습은 매일 약 2시간씩 있었고, 추가 연습이 필요할 때는 주 2회 정도 저녁 시간을 통해 보충했다. 앞서 언급한 농구대회는 참여하는 8개 의과대학이 돌아가면서 주최하는데, 올해는 연세대학교 주최로 이루어져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체육관에서 대회가 진행되었다. 경기는 YB(재학

생) 부문과 OB(졸업생) 부문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번에 새턴은 OB 경기에서 우승을 차지하였다.

이번 대회까지 주장을 맡은 박성진(의학과 2학년) 학우는 "여름 대회가 연간 행사 중 가장 큰 대회인 만큼 부담감이 상당했다. 그래도 합숙을 포함한 준비 기간 동안 팀원간의 협동을 통해 팀워크를 기를 수 있었다."며 "모두에게 결과를 떠나 유의미한 경험이 되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재학생 여름방학 합숙 훈련 후의 모습

교지편집부(호의령)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지편집부 호의령의 연 중 가장 중요한 과제는 단연 교지를 출간하는 것이다. 교지 출간을 위한 대부분의 작업이 여름방학에 이루어진다. 방학 후 곧바로 각자가 맡을 글의 주제를 정하는 회의가 이루어졌다. 그 후 1차 개요 작성을 한 후 서로의 개요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모임이 있었다. 1차 개요 작성 후에는 2차 개요를 거쳐 3차 최종 개요를 완성하였다. 1차 원고 제출은 7월 25일까지였는데, 그 날짜까지 각자 자료 수집, 인터뷰, 대략적인 글 작성까지 완료해야 했다. 8월 1일까지 2차 원고 제출, 8월 8일까지 3차 원고 제출, 8월 13일 4차 원고 제출, 그리고 9월 13일 대망의 최종 원고 제출이 있었다. 각 원고 마감일 사이의 기간에는 주제별로 나누어진 기획팀 별로 서로의 글을 다듬는 과정이 있었고 최종 원고 제출 전에는 다른 기획팀의 글까지 서로 돌려 보며 의견을 나누고 수정을 마쳤다. 호의령 교지는 출판사 작업을 거쳐 10월 중 발간이 되어 의과대학과 의료원 식구들에게 배부될 예정이며 매년 발간 기념식도 하고 있다.

호의령 편집장을 맡은 이세미(의학과 2학년) 학우는 "한 권의 책을 만드는 과정은 힘들었지만 책이 완성되면 굉장히 뿌듯할 것 같다."며 "우리의 생각이 기록으로 남을 것을 생각하니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사진반(KMPC)



사진반 품평회에서 학생들이 서로의 사진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반 전시회는 9월 3일부터 9월 5일까지 의과대학 4층 라운지에서 진행되었다. 여름방학에는 정기적인 모임인 품평회가 3회 있었다.(7월 11일, 7월 25일, 8월 8일) 정기 품평회는 사진반 구성원들이 다같이 모여 각자가 찍은 사진들을 함께 감상하며 감상평을 나누는 자리이다. 정기 모임은 3회이지만 동아리원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비정기적인 모임을 주선할 수 있다. 물론 참석은 자율이다. 강의실에서 프로젝터를 통해 함께 사진을 감상하는 품평회 외에도 다 함께 에버랜드나 인사동, 북촌 한옥마을에 가서 사진촬영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또한 사진반은 사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만큼, 사진을 찍는 활동뿐 만이 아니라 함께 사진 전시회를 관람하기도 한다. 이번 여름 방학 기간에는 -팔에게 준 선물- 안셀아담스 사진전에 함께 다녀왔다.

사진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한 김효정(의학과 1학년) 학우는, "출품하고자 하는 사진에 담긴 메시지를 관람객들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 다른 부원들과 함께 고심했다는 점에서 이번 전시회가 좋은 경험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소리를 완성시켰을 때는 무척 뿌듯함을 느꼈다."라고 했다.

글: 사진 호의령 장수연 기자

의과대학에는 30개 가까이 되는 동아리가 있다. 많은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으로 방학을 보내고있다. 학기 중의 학업 부담에서 벗어나 각자 관심있는 활동에 열정을 쏟아 공연, 대회, 전시전 등 결실을 이루어 냈다. 학생 자치의 꽃이라는 동아리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설계해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앞으로도 의과대학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의 결실이 기대된다.

학부모의 편지



학부모 허경옥 (의학과 3. 정주희 어머니)

화이트 코트 세리머니를 시작하지 엊그제 같은데 시간은 빨라서 구로에서 안산으로 이동하였고, 곧 세 번째 실습지인 안암병원으로 이동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올해 초 세상에서 처음으로 집을 떠나 독립(?) 한다면서 다소 설레는 마음으로 구로 오피스텔로 이사간 딸은 얼마가지 않아 집이 제일 좋으면서 금요일 귀가하는 시간만 기다리는 듯 했다. 급기야 지난주에는 몸살이 나서 혼자서 심하게 고생을 한 모양이었다. 그래도 가끔은 대견한 말을 한다. 집이 서울에서 먼 곳인 친구들은 주말이 되어도 집에 가지 못하고 혼자서 고생한다면서 마음이 안 좋다고 말하는 딸을 보면서 코끝이 짙하기도 한다. 의학도로서의 힘들고 어려운 이제 시작일 뿐이고 인턴 때에는 더 힘들다는 얘기가 주

변에서 들려오고, 대학병원에 교수로 남는 것은 하늘에 별 따기라는 얘기를 듣곤 한다. 지금 본과 3학년인 상황에서 관심사 중 하나는 어떤 세부전공을 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얼마 전 고려대학교 전문의 과정에 지원한 전공별 지원자 수가 발표 되다 보니 더욱 전공 선택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으로 보인다.

의대생마다 차이는 있지만 들리는 바에 의하면 최근 많은 의대생들이 좀 더 편한 전공을 하기 위해 고민하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좀 더 편한 전공을 하고 싶기 때문인 것 같아서 안타깝기 그지없다. 십년 전 이십년 전과 비교할 때 선호하는 전공이 변하고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아는 일이다. 가급적 모든 선택을 본인 당사자에게 맡기고 있는 엄마지만 전공 선택

에서 무조건 편한 것 보다는 그래도 딸의 적성에 맞는 전공,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전공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이러다가 수술 할 한국인 의사가 없어서 해외에서 외과 의사를 모셔와야 하는 날이 올까 두렵다. 보수 체계, 의료 수가 결정, 근로 시스템 등 의료 및 보건행정에서 대학과 정부 당국 등 관련 주체들이 전공별 의료진 양성과 관련한 심도 있는 고민과 대책을 강구해 주면 좋을 것 같다. 의사와 환자가 모두 행복한 시스템 구축은 불가능한 것일까?



'남부럽지 않은 연구열정', 학생연구 활발 올해 6회째 학생연구 발표회 성료, 자발적 연구로 지식 체득

최우수상

안동반점 팀 (의전2, 이성곤, 형원석)

매일 공부하는 일상에서 특정 분야에 대해 더 알아보고 배울 수 있다는 점이 학생연구회의 강점이다. 처음에는 iontophoresis patch를 이용해 약물을 deliver하는 방법과 효율성에 대한 연구목적과 방법을 정리했다. 하지만 여러 교수님들과 상담한 후, 교수님들의 연구 분야에 맞는 주제를 정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 후, 지도교수를 맡아주신 해부학교실의 김현수 교수님과 같이 토론하며 교수님의 기존 연구들 중 Myokine에 대해 연구를 하기로 결정했다. 팀원 두 명 다 운동을 매우 즐기기 때문에 운동이 신체에 끼치는 영향을 Cellular Level에서 연구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매력적이었다. 실험 과정은 처음에 순탄치 않았다. 가장 기초적인 cell culturing부터 매번 실수하기 일췌였다. 특히 Western blotting 실험은 step하나하나에 상당히 결과가 좌우 될 만큼 과정이 복잡하고 더욱 배우기 힘들었다. 이러한 숙련을 통하여 실험 계획에 맞춰 가능성 있는 myokine 후보군을 추리고 더 심화적인 실험을 진행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교수님과 해부학 연구실의 대학원생 선생님들께서도 많은 가르침과 도움을 주셨다. 그 결과 원하던 plan대로 실험을 끝마칠 수 있었고, 더불어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었다. 실험 연구의 특성상 논문과 발표에 사용된 데이터보다 더 많은 데이터의 축적이 필요했고 이를 얻기 위하여 방학 동안 매일매일 실험실을 나가야 했다. 그러나 계획하고 진행하며 고쳐나가는 실험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과정이 때론 힘들어도 매우 즐거웠고 이렇게 즐겁게 실험하고 연구하였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다. 이번 학생연구를 통해서 연구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고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싶다.

우수상

The Key is Visceral fat 팀 (의학과4, 김동혁, 의전4, 박민정)

우리 학교에는 창의적인 의과학자를 길러내기 위한 학생연구회라는 훌륭한 연구프로그램이 있어 동기와 함께 참여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계획을 세우려고 하기보다는 충분한 문헌고찰을 통해 구체적인 연구주제를 정하고 모자란 부분은 지도교수님께 가르침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문헌고찰과 연구의 가설을 세워 연구계획서를 작성하고 나면 지도교수님을 정해야 한다. 교수님께 연구 지도를 부탁드릴 때는 연구주제를 정하고 해당하는 주제를 연구하고 계신 교수님을 찾아뵙게 된다. 대부분의 교수님들께서는 학생들이 구체적인 연구주제를 가지고 가서 적극적인 모습으로 지도를 부탁드리면 선택 지도해주실 것이다. 의과학교실 박성수 교수님께서 열성적으로 지도해 주셨다.

우리 연구팀의 주제는 내장지방이 대사비만수술 후 당뇨의



호전인자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다. 당뇨호전의 예측인자로서 내장지방에 대해서는 선행연구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연구를 시작했고, 학생연구회 활동을 통해 내장지방의 분율이 대사비만 수술 후 당뇨호전의 예측인자임을 밝혀냈다. 이 연구의 의의는 내장지방의 분율이 대사비만수술의 적응증뿐만 아니라 비만의 지표로서 사용되는 BMI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이다.

연구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통계였다. 원하는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여러 가지의 통계 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도 어려웠다. 혼자 공부했다면 훨씬 어려웠겠지만, 함께하는 동료와 의견을 나누고 교수님과 선배들의 지도를 통해서 어려운 과정을 이겨낼 수 있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연구를 하면서 동료와 교수님의 도움으로 어려운 것을 하나둘 이겨냈던 기억이 가장 즐거웠다.

학생연구회를 하면서 연구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았다. 우리가 책에서 읽고 지나치는 한 구절이 얼마나 많은 연구자들의 노력에 의해서 밝혀진 것인지도 느꼈다. 연구를 마치고 나니 연구를 하면서 읽은 많은 논문과 통계공부를 통해 얻은 지식과 이런 기회가 아니면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동료, 교수님, 선배님들과 협동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소중한 자산이 되었다. 또한 동료의사들에게 새로운 지식을 알려준다는 보람과 성취감을 다시 느끼기 위해서 연구를 또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학생연구회 프로그램에 참가한다면 학생에게 연구는 벽할 것이라는 편견을 깨고, 동료의사들에게 지식을 알려주는 성취감을 느끼고 동시에 예비의사로서 한 단계 더 발전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장려상

가이드라인 팀 (의학과2, 지정현, 이수교, 김정민)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관상동맥질환을 가진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PCI)와 관상동맥 우회로술(CABG)의 비교를 메타분석으로 진행했다. 마음이 맞는

의과대학은 지난 8월 31일(월) 오후 의대 본관 418호 강의실에서 '제6회 학생연구회 활동결과 발표회'를 열었다. 고려대 의과대학은 학생들에게 지식을 제공할 뿐 아니라 자발적 연구활동을 통해 스스로 체득하는 방법을 교육시키고자 교수학습지원센터 주관으로 매년 학생연구회 활동 중간발표 및 결과 발표회를 개최하고 있다. 다음은 수상팀의 연구 이야기.

친구들끼리 학과 공부 외에 연구 활동을 해보고 싶어서 모인 계기였다.

논문작성과정은 대학원 지도교수님인 흉부외과학교실 선경 교수님께서 지도를 맡아주셨다. 예방의학교실 김현정 교수님도 논문 작성에 큰 도움을 주셨다. 마취통증의학교실 임춘학 교수님께서 메타분석 관련해서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다. 덕분에 한국 코크란연합회에서 진행되는 메타분석 워크숍 프로그램에도 참가할 수도 있었다. 당시 본과1학년을 막 끝낸 상태였기 때문에, 임상관련 아는 내용도 없었고 논문의 논자도 모르는 상태 였지만 워크숍을 들으면서 논문작성에 대한 큰 틀을 잡은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우리 팀은 처음에는 신장질환환자 중 관상동맥질환에 걸린 환자에 대한 쪽으로 주제를 잡고 진행하고 있었는데, 2015년 1월에 관련 주제의 논문이 SCI저널에 발표되었기 때문에 한국인에 대한 연구로 방향을 수정하게 되었다. 국내환자를 대상으로 한 메타분석 자료도 아직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잘 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논문 작성은 메타분석의 분석대상논문 검색과정에서 많은 논문을 읽어본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아직 논문 작성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비슷한 주제로 쓴 논문을 많이 읽어보고, 논리의 전개과정과 전반적인 흐름을 익혔다. 물론 의도하지 않은 표절을 조심하기 위해 참고한 논문을 철저히 인용했고, 또 인용을 철저히 하는 버릇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본과 학기 중에는 폭풍 같은 학습량에 치여서 많은 내용이 휘 지나가버리는데,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방학시간을 활용해서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깊게 공부하는 활동을 한 것은 정말 좋은 경험이었다. 가끔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 막막할 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앞으로는 그것 또한 연구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예방의학교실 김현정교수님께 감사를 전하고 싶다.

2016학년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학사편입학 학생모집

모집과정, 모집학과, 지원자격, 전형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http://oku.korea.ac.kr>)
*입학지원서는 위 입학처 홈페이지 인터넷으로만 접수

전형일정

- 가. 원서접수 : 2015년 10월 2일(금) 10:00 - 10월 6일(화) 17:00
- 나. 서류제출 : 2015년 10월 2일(금) - 10월 8일(목)
[등기우편 제출 - 직접 제출 불가]
- 다. 1단계 합격자발표 : 2015년 11월 13일(금) 17:00
- 라. 면접고사 : 2015년 12월 5일(토)
- 마. 최종 합격자발표 : 2015년 12월 18일(금) 17:00
- * 문의처 : 입학처 (☎02-3290-5161~3)

2016학년도 고려대학교 대학원 전기 학생모집

지원자격, 모집과정, 모집학과,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을 확인하고 인시요강을 필독하고 본 대학교 대학원 홈페이지(<http://graduate.korea.ac.kr>)
*입학지원서는 위 대학원 홈페이지 인터넷으로만 접수

전형일정

- 가. 원서접수 : 2015년 10월 5일(월) 10:00 - 10월 9일(금) 17:00
- 나. 서류제출 : 2015년 10월 5일(월) 10:00 - 10월14일(수) 17:00
[등기우편 제출 및 방문 접수]
- 다. 구술시험 : 2015년 11월 7일(토) 09:00
- 라. 합격자발표 : 2015년 12월 4일(토) 10:00 예정
- * 문의처 : 대학원 행정실 (☎02-3290-1356~7)

미주교우안내

미주지역 기부방법 - 고려대학교 국제재단 (International Foundation for Korea University, Inc.)

고려대학교 국제재단은 1997년 10월 28일자로 설립되었으며, 미 연방에 등록된 Tax-exempt organization입니다. 미국 납세의무자께서 고려대학교 국제재단을 통해 기부하실 경우 IRS 규정에 따라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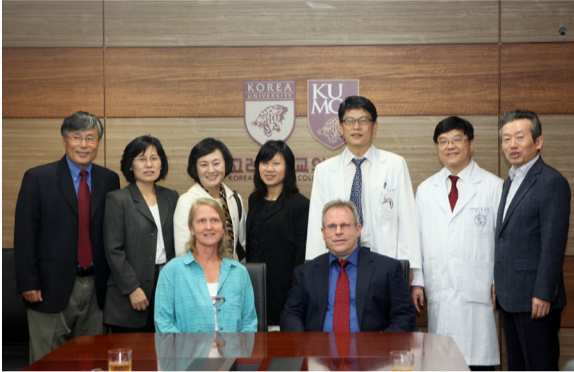
ADDRESS : 15 Autumn Hill Road, Princeton, New Jersey 08540, United States

EMAIL : info@ifku.net
(Attn: Wan-Mo Kang, Chairman 1-609-895-6638 / wkang@foxrothschild.com)

고려대학교 국제재단 홈페이지 : <http://www.ifku.net>

의대 · 의전원 소식

로제타 홀 탄생 150주년, 후손 방문



고려대의료원은 로제타 홀 탄생 150주년을 맞아 '로제타 홀 후손 방문' 행사를 9월 15일(화) 가졌다. 로제타 홀 여사는 고려대 의과대학의 전신인 경성여의전의 모체가 되는 조선여자의학강습소 개소를 주도하며 의료불모지 조선 땅에서 여성 환자들을 위해 43년 동안 의료봉사를 펼친 인물이다. 이번 고려대의료원 방문단은 로제타 홀의 증손자 클리포드 킹(Clifford Griswold King)과 그의 6촌 앤 메시나(Ann Lineweaver Messina), 에스터 재단 김현수 박사, 강현희, 전 남진 이사 등으로 구성됐다. '로제타홀 후손' 일행은 먼저, 의대 본관 학장부속회의실에서 김효명 의과대학장을 만난 뒤, 의료원 본부회의실에서 김우경 의무부총장, 김영훈 안암병원장 등 의료원 주요 보직자의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

의과대학 의인문학교실, 죽음에 대한 의학적 이해 토론회 개최



의과대학 의인문학교실(주임교수 정지태)은 9월 16일 오후 6시 30분 의대 본관 313호에서 "죽음에 대한 의학적 이해: 뇌사와 장기기증의 윤리적 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의료인으로서 '죽음'에 대한 이슈는 숙명적으로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급박한 의료환경 속에서, 이러한 고민들은 자칫 놓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 이번 토론회는 반드시 고민하고 넘어가야 할 '죽음과 삶'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 기획됐다. 생리학 교실 이민구 교수가 발표를 맡아, '죽음'의 정의에 대한 견해들을 소개한 후 뇌사와 장기기증의 윤리적 문제에 대해 고견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의인문학교실 정지태 주임교수는 "사회적으로 의인문학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고 밝히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의학에서의 윤리적, 인문학적 논의가 더 활발해 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후학을 위한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병리학교실 원남희 교수, 5,000만원 기부



의과대학은 9월 14일(월) 오전 10시 의대 본관 학장부속 회의실에서 병리학교실 원남희 교수로부터 5,000만원을 기부 받았다. 기금 중 4000만 원은 병리학 교실 지정 기금으로 사용되어, 질병의 기전을 밝히기 위한 기초 연구, 병리

학교실 교육분야 강화 등으로 사용되며, 1,000만원은 의과대학 장학금으로 지정되어 후학양성에 사용될 예정이다. 원남희 교수는 "병리학교실 및 의대의 후학들에게 미약하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하며 "앞으로 후학들도 교실 및 의료원 발전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고대의대 23회 동기회, 졸업 50주년 기념 의학발전기금 1억 원 기탁



의과대학은 23회 동기회(회장 함기선) 회원이 참석하는 '고대의대 23회, 졸업 50주년 기념 모교방문 행사'를 지난 9월 11일(금) 오후 2시 의대 문숙의학관 원형강의실에서 개최했다. 50년 만에 모교를 찾은 23회 동기회 교수들은 의과대학의 현황을 소개받고, 의대 및 고려대학교 교정, 고려대 박물관을 돌아보며 모교의 발전된 모습을 직접 확인했다. 특히, 첨단 교육환경을 갖춘 의대본관과 실용해부센터, 의대도서관을 보며 과거와는 다른 발전된 모습에 감탄했다. 한편, 고대의대 23회 동기회는 지난 9월 2일(수)에 졸업 50주년을 기념해 의학발전기금 1억 원을 전달했다. 23회 동기회가 보여준 소중한 모교사랑은 의료원의 교육·진료·연구 등의 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KU-MAGIC 본격화, 론칭 세리머니 성료 바이오메디컬 융복합연구개발 콤플렉스 구축



고려대학교는 9월 4일 오후 5시 고려대 정릉캠퍼스에서 바이오메디컬 연구, 혁신, 사업화를 선도할 글로벌 콤플렉스인 KU-MAGIC

프로젝트 론칭 세리머니를 가졌다. KU-MAGIC의 MAGIC은 Medical Applied R&D Global Initiative Center의 약자로 의료, 연구, 개발, 글로벌 네트워크, 국제과제 수행, 사업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거대한 프로젝트를 의미한다. 기존에 고려대 보건과학대학이 자리했던 정릉캠퍼스는 KU-MAGIC PROJECT ONE을 통해 첨단 의료과학센터로 거듭날 예정이다. 2016년 출발하는 KU-MAGIC PROJECT ZERO는 의과대학, 보건과학대학, 생명과학대학, 이과대학, 공과대학, 약학대학, 간호대학 등과 안암병원을 잇는 최첨단 융복합의료센터 구축을 목표로 한다. 고려대의료원은 이미 단일 의료원 기준 국내 유일한 복수 연구중심병원(안암, 구로)으로 선정되어 그 우수성과 저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또한 고려대 의과대학뿐만 아니라 고려대학교의 바이오메디컬 전 분야에 걸쳐 선도적인 연구력과 풍부한 휴먼파워를 보유하고 있다. 이 기관들이 한데 어우러져 활발한 융합연구를 통해 새로운 성과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 KU-MAGIC 프로젝트의 핵심이다.

"고대의대생 여러분, 합격하세요" 국가고시 실기시험대비 학생 지원품 전달



의과대학 김효명 학장은 9월 3일(목) 오후 5시 학장부속회의실에서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보는 의학과 4학년 학생들에게 '국가고시 실기시험대비 학생 지원품'을 전달했다. 이날 119명의 수험

생들에게 전달될 지원품 상자는 의학과 4학년 최은호 학생이 대표로 받았으며, 이 상자에는 실기시험에 필요한 농양패드, 봉합사, 수술복, 멸균장갑과 다과를 비롯한 학장님의 격려문이 들어 있다. 최은호 학생은 "학장님을 비롯해 학교에서 작은 부분까지 신경써주시고 챙겨주셔서 감사하다"며 "남은 시간동안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좋은 결과로 보답 하겠다"고 말했다.

예방의학교실 김해준 교수, 정년퇴임 맞아 의학발전기금 1억 원 기부식



고려대의료원은 8월 27일(목) 오전 10시 고려대학교 본관 인촌챔버에서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김해준 교수의 의학발전기금 1억 원 기부식을 진행했다. 김해준 교수는 "정든 강단을 떠나더라도, 후학들을 위한 마음은 항상 간직하겠다"며 "의료원 발전을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고려대 의과대학 정년퇴임식 거행



의과대학은 8월 27일(목) 오후 5시 의대 본관2층 유광사홀에서 정형외과학교실 채인정 교수, 진단검사의학교실 김영기 교수, 외과학교실 서성욱 교수, 내과학교실 유호상 교수, 응급의학교실 홍윤식 교수, 예방의학교실 김해준 교수의 정년퇴임식을 거행했다. 이날 행사는 ▲개회사 ▲국민의례 ▲김우경 의무부총장 감사말 ▲김영훈 원장의 감사말 ▲김효명 학장의 송별사 ▲공로패 및 기념메달 증정 ▲퇴임사 ▲학생대표 감사의 글 ▲꽃다발 증정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기 교수는 퇴임사에서 "정년을 맞아 어렵고 긴 숙제를 끝낸 기분이다. 숙제를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고 말했다. 서성욱 교수는 "요즘 외과가 어려운데 외과 발전을 위해 병원이나 학교에서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길 부탁 드립니다"며 외과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표현했다. 유호상 교수는 지난 31년 6개월 간 고려대의료원의 역사를 되짚어 보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해왔다고 했다. "의료원장님과 학장님, 병원장님께서 앞으로 좋은 의료원, 좋은 학교를 만들어 주시길 바라며 그동안 몸담아 열심히 일하고 떠나게 돼서 감사하고 함께 일한 동료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홍윤식 교수는 "30년 동안 좋은 분들과 함께 해서 고맙고 감사했다"며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이라는 고은 시인의 시를 읊으며 내려갈 때 조심히 내려가겠다고 말했다.

김해준 교수는 "예방의학교실 동료들에게 특히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교육과 학문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해주신 아내에게 공개적으로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해서 퇴임식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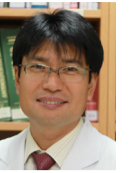
김효명 의과대학장은 송별사를 통해 "교수님들의 높은 학문과 경륜은 대학과 우리사회의 많은 분야에서 간절하고 필요로 하고 있다"며 "비록 자리를 떠나시더라도 앞으로 모교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후진들을 지도 편달해 주셔서 급변하는 의료 및 의학교육 환경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10·11월 학사일정

10	1일(목)	생각의 향기
	9일(금)	한글날
	14일(수) ~ 16일(금)	융합전공 신청
11	19일(월) ~ 23일(금)	제2학기 중간고사
	2일(월)	의학과2 : category 6
	5일(목)	생각의 향기
	11일(수) ~ 13일(금)	이중전공 신청
	25일(수)	의대 및 의학전문대학원 학부모회 정기총회

교육 칼럼

가장 좋은 멘토의 조건 1순위는 'be available'



학생개발지원실장 재활의학교실 편성범 교수(안암병원 재활의학과)

의과대학 학생개발지원실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본과 1학년 을 대상으로 전수상담을 실시하였다. 작년에는 학생개발지원실 선생님 두 명이 하던 것을 올해에는 8명이나 되는 기초와 임상 전임교수들이 상담에 투입되어 학생들과 개별면담을 실시하였다. 상담 참여율도 작년에 84%였던 것에 비해 올해에는 본과 1학년 재학생 중 2명을 제외한 98.3%의 학생이 상담에 응했다. 전수 상담을 통해 드러난 우리 의과대학 본 1학년들의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로는 역시 작년과 올해 모두 첫째는 학업문제, 둘째는 진로 문제, 셋째로는 정서적인 적응의 어려움이었다. 그 외에도 본인의 성격, 이성문제, 같은 과 친구 문제와 같은 대인관계의 어려움이 뒤를 이었다. 그런데 본 1 전수상담결과를 보면서 또 다른 궁금증이 생겨난다. '그럼 본과 2학년이 되면 고민이 많이 없어졌을까?' '병원 실습을 돌면서는 어떤 고민을 할까?' '예과생들은 날마다 인생 최고의 날을 보내고 있을까?'와 같은 질문들이다. 이 대답에 대해 그동안 우리 의대는 별다른 노력을 보여주지 못했었다. 의과대학에도 지도교수제도가 있긴 했지만 모두 자율적으로 알아서 진행하도록 되어있었다. 그리고 학생들은 수업만 잘 가르치면 스스로 알아서 잘 거라는 기대 속에 방임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다른 의과대학들이 일찍부터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여러 채널과 시스템을 갖춰 운영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우리 의대에서는 도끼자루가 썩는 줄도 모르고 지내왔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최근 수년 동안 우리 의대도 뒤늦게나마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 고민을 해결하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발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수년간 의예과 생들에게는 멘토링제도를 만들어 소수의 학생들이 자원한 멘토 교수를 배정받아 의예과 생활에 잘 적응하고 의학과에 진입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또 작년 TPT 활동을 거쳐 올해 문을 연 학생개발 지원실도 문속의학과에 공간을 마련해 학교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상담을 시행하고 있다. 아직 시작단계이긴 하지만 그런 것 치고는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학생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보겠다는 의지로 여러 기초와 임상교수님들도 자원해서 상담위원 겸 운영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또한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통해 모은 의견을 취합하여 2015학년도 2학기부터 다양한 소그룹 활동을 계획 중이다. 이번 9월에는 '나의 학습문제 진단과 이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이완훈련에 대해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 소그룹 활동을 시작했다. 아직 시작단계로서 첫 술에 배부를 순 없지만 이 정도면 첫해 사업치고는 좋은 편이다. 의예과 멘토링 시스템이 의학과 지도교수 제도와 잘 연계하여 보완되고, 학생개발지원실도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면 앞으로 고민하는 본 1, 아니 M6(의예과 과정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6년 의과대학 과정의 연속선상에서 1, 2학년으로 가는 제도)로 가는 의과대학 생

활에서도 학생들이 잘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한 가지 고무적인 사실은 여러 의대교수들이 자원하여 학생의 지도에 열성으로 뛰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우리의 대의 가장 큰 자산이고 함께 일할 몇 년 뒤의 동료의사이자 연구자인 학생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처럼 자원하는 교수들과 똑같이 모든 교수가 똑같이 학생지도에 나설 수는 없지만 최소한 본인의 지도학생에게는 멘토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세상에는 급하면서 중요한 일과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이 있듯이 교수로서의 생활은 늘 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여겨지는 산적한 일을 빗쟁이에 쫓기듯 해결하느라 온 정열을 쏟곤 한다. 연구논문, 연구비 수주, 진료, 학회활동 등등.....그러다 보면 덜 급하지만 중요한 학생과의 관계는 우선 순위에서 곤잘 밀리곤 한다. 가장 좋은 멘토의 조건 1순위는 'be available'이다. 요즘에는 자신의 시간을 상대를 위해 쓰는 사람이 가장 고맙다고 한다. 바쁜 생활 속에 쉽지 않겠지만 본인의 시간을 나눠주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리고선 만나서 학생을 이야기의 중심에 놓고 하나 둘 질문을 하면 학생과의 교감은 절로 형성된다. 굳이 내가 어렵게 낸 시간을 나의 무용담을 쏟아 부어 내 클론(clone)을 만들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말이다.

캠퍼스 라이프

라파엘클리닉 필리핀 의료봉사를 다녀와서

의학과 2. 김승범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세부에 도착해 내리자마자 필리핀의 무더운 날씨가 느껴지면서 드디어 필리핀에 왔다는 실감이 났다. 도착하자마자 그날 밤부터 물품 정리, 진료실 세팅 등으로 쉴 틈 없는 일정이 진행되었다. 부족한 준비 탓에 첫 날 밤부터 학생들끼리 밤을 새가며 회의를 하느라 꽤나 피곤한 상태로 첫날 진료 일정이 시작됐다. 진료소에서

우리가 맡았던 일은 현지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보건위생교육, 학생들과 주민들의 문진과 예진, 진료 보조였다. 환자 예진은 환자들에게 주 증상과 과거력 등을 묻고 진료과를 배정해주는 것이었는데, 평소 라파엘클리닉에서 많이 했던 일이고 부족한 의사소통은 현지 통역사 수녀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수월하게 진행됐다. 또, 필리핀의 덥고 습한 날씨 때문에 현지 사람들의 귀 위생상태가 굉장히 나빠서 이경으로 귀 속을 보고서 비정상상을 감별하는 일도 많았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현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손 씻기, 이 닦기 등의 보건위생교육도 맡아서 진행했는데, 영어로 발표하는 연습이 조금 부족해 초반에는 시간이 걸렸지만 차츰 적응하면서 아이들과 소통하고 재밌게 진행할 수 있었다. 같이 갔던 친구들이 각자 맡은 일을 잘 해줬고 오히려 내가 영어 실력도 부족하고 이경 보는 기술도 부족해서 도움이 못 된 건 아닌지... 현지에서 병원 겸 숙소로 이용했던 Marie Doty Infirmity의 시설은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깔끔하고 좋았고, 수녀님들이 만들어주셨던 식사도 맛있어서 살

이 약간 더 찌서 돌아온 것 같다. 수녀님들께서 친절하게 우리를 맞아주셨고, 현지 Boy's/Girl's town 학생들도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보다는 순수한 모습이었다. 특히 마지막 진료를 마치고 저녁에 Girl's town에서 있었던 환영파티가 가장 감동적이었다. 수십 명의 학생들이 멋진 환영 공연을 해주었고, 손수 쓴 편지도 받았다. 필리핀을 다녀왔었던 분들께서 하나같이 가보면 왜 좋은지 안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실제로 경험해 보니 기대보다 감동이 더 컸다. 사랑을 주려고 갔다가 오히려 받고 오게 된다는 말이 정말이었다. 7월26일부터 31일까지 필리핀에서 보낸 시간은 값진 시간이었다. 필리핀 캠프 준비 기간 동안 가서 잘 할 수 있을지, 또 우리가 어떻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고민은 많이 했는데 실제로 현지에서 적용이 힘든 점도 있었지만, 막상 인천공항을 떠나 필리핀에서 보냈던 5일 동안은 준비하는 동안의 어려움은 생각도 나지 않을 정도로 행복한 시간이었다.

동아리 소개

스킨스쿠버 (잠수의학연구회)

의학과1. 안지상



스킨스쿠버(잠수의학연구회) 동아리는 1975년도에 만들어졌으며, 스킨스쿠버 다이빙 활동을 통한 심신 단련 및 올바르고 건강한 정신 함양하는 것이 목표이다. 지도교수님은 안산 신경외과 김상대 교수님이시며, 이준상 교수님, 박선화 교수님, 김해준 교수님, 윤도경 교수님, 박정률 교수님께서 역대 지도교수님을 맡아주셨다. 장비의 가격이 비싸다

는 특징과 버디 시스템을 통한 동아리 구성원들간의 끈끈한 유대감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학년에 소수정예로 2~3명씩 구성되어 있는 동아리이다. 스킨스쿠버의 활동은 여름 원정, 여름 스쿠버의 밤 행사(이하 신입생 환영회) 그리고 겨울스쿠버의 밤 행사(이하 전문의페 증정식 및 졸업생 환영회)가 있다. 여름 원정은 재학생들을 중심으로 여름방학 때 스킨스쿠버를 하러 직접 바다로 원정을 가서 약 일주일 동안 스쿠버 활동을 즐기고 온다. 학기 중에 2주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지속적인 수영장 훈련을 통하여 갈고닦은 실력을 바탕으로 실제 바다에서 스쿠버 활동이 이루어지며, 신입생들은 '오픈워터' 자격증을 취득하고, 재학생들은 '어드밴스'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원정은 주로 제주도, 울릉도 등 국내로 갔었는데, 2015년도에는 처음으로 필리핀 세부로 해외 원정을 갔다. 여름 스쿠버의 밤 행사는 신입생 환영회를 하는 행사이며, 겨울 스쿠버의 밤 행사는 전문의페를 증정하고 졸업생들을 환송하는 행사다. 이 두 행사 때는 역대 지도교수님들 및 많은 OB선배님들께서 참석해주신다.

특히, 2014년도에 스킨스쿠버 OB회가 창립되면서, 1대 OB회장을 맡고 계신 박정률 교수님과 현 지도교수님이신 김상대 교수님을 중심으로 OB 선배님들의 활동도 활발해지고 있으며 스킨스쿠버 재학생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계신다. 지난 9월12일에는 '스킨스쿠버 50주년 및 김해준 교수님 퇴임식 기념 심포지엄'이 열려서, 모든 역대 지도교수님들, 많은 OB선배님들 및 재학생이 참석하여 50주년과 김해준 교수님의 퇴임식을 축하하여 선후배간의 정을 더 돈독히 하였다. 스킨스쿠버의 특성 상 겨울에는 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어서 겨울 방학 때는 큰 행사가 없지만, 재학생들간의 꾸준한 수영장 훈련을 통하여 심신을 건강히 하고, 1~2주마다 열리는 집회를 통하여 친목을 도모한다. 소수정예 동아리인 만큼, 구성원들 사이에 가족과 같은 끈끈한 정과 유대감이 있다.

연구 칼럼

참 행복한 연구자의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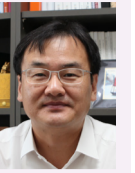
뭘 잘 모르고 어리바리하던 젊은 시절 유행성출혈열의 원인체인 한탄바이러스를 세계최초로 분리 하신 이호왕 교수님의 존함을 외국학자가 저술한 바이러스학 교재에서 처음으로 만나고 감명을 받았던 그때의 그 순간을 아직도 난 잊지 못한다. 그때 이후 난 내 운명이 어쩌면 평생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학자로 살게 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상상을 하곤 했다. 그런 연유로 1993년 12월 추운 겨울 어느 날 미생물학교실에서 난 대학원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나 교실에 들어온 지 얼마안된 시점인 1994년 2월 이호왕 교수님께서 정년퇴직을 하셔서 아쉽게도 직접 가르침을 받지는 못했다. 대학원 과정 동안 한탄바이러스의 분자생물학적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그때 당시 흔치 않았던 PCR 기기를 사용할 수 있어 다른 실험실 연구자들의 많은 부러움을 받기도 했지만 PCR 수행 후 증폭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 장비가 있는 방으로 이동하는 그 짧은 시간에도 혹시 모를 negative 결과 출현에 가슴 졸였던 일이 더 많았던 것 같다. 그리고 병원성에 관여하는 한탄바이러스의 유전적 요소를 규명하기 위해 그 당시로는 노동집약적인 고전적 방법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많은 고생을 했는데 이 고전적 방법을 대체할 새로운 획기적인 방법이 뭐 없을까 고민하던 어느 날 우연히 1989년 Cell 잡지에 게재된 Dr. Peter Palese의 논문을 만나게 된다. 이 논문은 현재 많은 바이러스 연구자들에게 광명을 가져다 준 reverse genetics system(역유전학방법) 구축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같은 RNA 바이러스에서도 가능

하다는 것을 보여준 논문으로 그 당시로서는 매우 획기적인 연구결과였다. 역유전학법이란 바이러스의 전체 유전자 염기서열을 알면 내가 원하는 어떤 바이러스도 실험실에서 제조해 낼 수 있는 방법으로 현재 바이러스의 여러 특성을 규명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최강의 바이러스 연구 tool 이다. 그러나 Dr. Palese 연구실도 1989년 그 가능성을 확인한 후 실제로 실험실에서 성공적으로 바이러스를 제조하는 데는 무려 10여 년의 시간이 걸렸다. Dr. Palese의 논문을 접한 후 나는 reverse genetics system에 완전히 빠져 버렸다. 바이러스 연구를 평생 업으로 삼은 나 같은 초보 연구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기술임이 분명해 보였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연구의 선구자 Dr. Peter Palese 교수와의 운명적 만남

박사학위를 받고 난 후 난 주저 없이 박사 후 연구 기관을 Dr. Palese가 계신 뉴욕의 Mount Sinai 의대로 정하고 20세기가 몇 달 남지 않은 1999년 10월에 난 Dr. Peter Palese 연구실에 join 하였다. Dr. Palese는 이 분야의 권위자답게 만만치 않았던 분이였다. 설 새 없이 몰아쳤다. 하루를 25시간처럼 사용하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 정도로 젊은 연구자들에게 혹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Dr. Palese와 실험 결과를 가지고 논의한 후에는 항상 마음에 평온이 오는 걸 느꼈다. 역시 대가는 내가 가야 할 방향을 단 한 번에 잡아주었다. 7년간 Dr. Palese

교수와의 소통으로 나는 그로부터 연구자로서의 책임감, 성실성, 인내심, 그리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따라 꾸준히 갈 수 있는 자질을 배웠다. 지도교수로서 대학원생들과 연구 과제를 진행할 때 학생들이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가이드하려면, 자신이 하는 언행에 신뢰가 있어야 하고 솔선수범해야함을 느끼곤 한다. 연구책임자로서 갖추어야 할 일련의 이런 자질이 Dr. Palese의 혹독한 수련 과정 속에서 내 안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음을 이제 누군가를 가르쳐보니 느끼게 되었다. 과학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토대로 가설을 세우고 실제 실험을 통해 과학적으로 증명해 내는 과정이다. 그러나 이런 과학적 연구방법을 동원해도 실험결과는 대부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는다. 그러므로 과학은 좌절하지 않고 또 다른 접근방법을 찾아야 하는 매우 어려운 구도의 과정과 흡사하다. 하지만 구도의 과정에서 깨달았을 때 무한대의 희열이 오는 것처럼 연구과정속에서도 보람과 희열이 무한 교차 반복되므로 연구자의 길도 참 행복한 길 중의 하나이다. 지난해 뉴욕을 떠난 지 7년 만에 Dr. Palese를 라트비아 리가에서 열리는 학회에서 만났다. 당신 연구실에서 일할 때 설 새 없이 몰아치는 당신이 밟고 서운했지만 지금 누군가를 가르쳐보니 당신을 이해하겠다고 하니 heartwarming되는 말이라고 하시며 무척 기뻐하셨다. 철었던 연구자를 제대로 걸어가게끔 만들어 주신 Dr. Palese에게 무한한 감사를 느끼며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연구자가 되는 길을 걸어가야겠다.



미생물학교실 박만성 교수

메디컬 이슈

응급의학과 김수진 교수, 세계중환자의학회 학술대회서 에크모 심폐소생 교육 최초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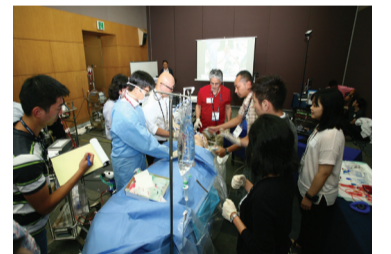


학술대회에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응급의료센터가 '성인 부분체외순환소생술 교육: 에크모 심폐소생 기본과정'(Adult Extracorporeal Cardiopulmonary Life Support(이하 ECLS) Course: Basic step for Extracorporeal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이하 ECPRI))을 진행해 성황리에 마쳤다. 현재 병원 밖 심정지 환자에서의 ECPRI영역은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경험과 관련연구가 많지 않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응급의료센터는 이성우 교수를 필두로 병원 밖 심정지 환자에서의 ECPRI를 국내에서 선구적으로 시작했으며, 흉부외과 손호성 교수

지난 8월 29일부터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된 제 12차 세계 중환자의학회(WFSICCM)

는 에크모 기기 개발 참여, 흉부외과 정재승 교수는 아시아태평양 ELSO 모임에서 대한민국 대표로 참여하는 등 응급의료시스템의 발전에 앞장서며 선구자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응급의학과 김수진 교수는 한국의료시물레이션학회의 창립부터 시작하여 의료 시물레이션 바탕 교육에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2014년 해외 저명한 의료 시물레이션 센터에서 연수를 마치고 2년 전부터 상급 교육 코스를 개발을 기획하고 총책임 맡고 있다. 병원 밖 심폐소생술, 에크모, 의료시물레이션 교육 등 고려대 안암병원의 체계적인 인프라와 세계적 연구 인력을 바탕으로 구성된 이날 워크숍은 ▲심정지 환자에서 ECPRI의 적용과 효과 ▲심정지 소생치료 중 어려운 정맥관·동맥관삽입술을 초음파를 이용한 삽관 개발 및 실습 ▲ECPRI 환자의 치료에 있어 알아야 할 관리 ▲심정지환자에서 ECPRI 적용과 소생 후 치료에 관한 시나리오 ▲ECPRI 적용 후 환자 치료 및 관리에 대한 시나리오를 고기능 시물레이터를 이용한 프로그램 등으로 마련돼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모았다. 응급의료센터는 워크숍 전 참가자들의 교육설문을 통하여 개개인

의 수준을 파악하고 사전 리허설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참여에 있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를 비롯해 싱가포르, 호주, USA, 일본, 카타르 등 각국의 의료진이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워크숍 후 참석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의 탄탄한 완성도를 입증하며 높은 찬사를 받았다. 응급의학과 김수진 교수는 "이번 워크숍은 최근 소생분야에서 떠오르는 ECPRI를 주제로 해 국내외 최초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이 ECPRI 교육 과정을 진행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며, "응급의료 선진화를 이끄는 안암병원의 인적 인프라를 바탕으로 추후 흉부외과 등과의 협진을 통해 ECLS심화 교육과정, 소생센터(Resuscitation Center) 개소 등에도 집중할 계획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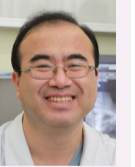
고연전

필승! 전승! 압승! 2015 고연전을 마치며

고연전의 날이 밝았다. 다행히 날씨는 아주 좋았다. 우리의 삶이 다양한 것처럼 고려대학교 구성원들에게 고연전의 의미는 아주 다른 모습이다. 1년의 생활이 고연전으로 시작해서 내년 고연전의 결과를 예측하며 한 해를 보내는 고연전 마니아에서부터 고연전은 이제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고연전 페지론자까지 다양하다. 고연전은 1965년에 처음으로 지금과 같은 5개 종목으로 시작되었고, 올해 고연전은 시작된 지 50주년이 되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고연전은 50년 동안 6번 열리지 못해서 올해까지 45회가 개최됐으며 반세기의 세월동안 우리에게 기쁨과 환희를 때로는 슬픔과 좌절을 느끼게 해 왔다. 고연전은 수많은 고대가 족들 앞에서 치러지기 때문에 다른 대회는 전부 지더라도 고연전에서만큼은 이겨야 한다고 코칭스태프와 선수들은 생각하고 있고 고연전의 승리를 위해서 혹독한 훈련을 이겨낸다. 녹지운동장을 지날 때 마다 뜨거운 태양아래에서 수개월 동안 수없이 많은 땀을 흘리고 새기말게 탄 응원단과 기수단을 보면 고연전 이틀 동안 하나가 되는 울동과 연제 들어도 흥겨운 응원가로 젊음과 지성을 마음껏 발산하는 모습을 보면 고

연전은 보존되어야 할 문화적 유산이고 국내외 여러 지방에서 다양한 축제가 열리는 것처럼 고려대학교 및 연세대학교 학생, 직원, 교수들이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이어야 한다. 의료원 교육수련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의료원 신입 직원들에게 고대라는 일체감을 심어주기 위해 만든 고연전 조직 문화 교육은 지금 의료원 인기 교육중의 하나가 되었다. 고려대를 졸업하지 않은 의료원 신입 직원들이 고연전 야구와 농구 그리고 고연전 뒤풀이 마당이 펼쳐지는 참살이길의 유명한 삼통에서 치맥을 즐기면서 하루를 보내고 나면 고대 의료원에 대한 자긍심도 높아지고 고려대학교 구성원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된다. 내가 체육위원회 일을 하게 된 것은 2009년 7월 당시 학생처장이시던 의대 교수님의 추천으로 농구를 좋아하고 또 농구부에 정형외과 환자가 많아서 농구부장으로 임명되면서 시작했다. 6년 동안 농구부장으로 활동 후에 올해 4월 30일에 체육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체육위원회는 축구, 럭비, 야구, 농구, 아이스하키 5개 종목과 2014년에 새로 창단된 여자 축구 그리고 골프를 포함한 개인 종목에서 매년 체육특기자를 선발하고 이들

학생 선수들의 학사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이외에도 학생선수들의 대회 출전, 외국대학과의 교류 경기, 교내 스포츠 동아리 활동 후원, 각종 홍보 활동, 스포츠 전문 교내 잡지인 SportsKU 발간, 여러 가지 교내 스포츠 시설 관리 등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체육은 엘리트 스포츠 위주로 이제까지 발전되어 왔지만 국민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서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대학 내에서도 각종 스포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엘리트 스포츠도 운동선수 이전에 학생이기 때문에 공부와 운동을 병행해서 할 수 있게 변화하고 있고 농구와 축구는 학기 중에는 리그제로 운영되면서 운동선수들이 수업에 꼭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리그제로 진행되면서 홈-어웨이로 교내에서 경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서 스포츠를 좋아하고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교내에서 경기를 즐길 수 있게 유도하고 또한 학생 선수들이 교내 스포츠 동아리와 좋은 유대 관계를 형성하면서 엘리트 스포츠와 생활 스포츠가 같이 상생하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중요하다.



고려대학교 체육위원장 정형외과학교실 박정호 교수 (안산병원 정형외과)

고대의대 초기역사 인물열전 (3)

1편 로제타홀 | 2편 박에스터 | 3편 김탁원, 김정희 | 4편 김종익

민족의 의대, 고대의대 초기역사 인물열전

우리 의과대학은 사회의 가장 어려운 민초의 고통을 치유하고자 노력해왔다. 고대의대의 시작은 구한말 여자가 남자의사에게 치료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모성보호'와 '민족의 생존'에 가장 필요한 여의사를 키워달라는 민초의 요구에 대한 시대적 응답이었다. 이러한 역사적 뿌리로 인해 산업화 시대에도 우리 의대는 그 시대 어려운 약자의 요구가 있는 곳에 병원을 열었다. 의료소외 지역이었던 구로공단, 반월공단(안산), 농촌지역인 여주에 병원을 개설한 것은 다른 대학과는 확연히 비교되는 행보였다. 우리의 역사에 의료의 손길이 가장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의 전통을 뿌리를 품게 한 인물들이 있다. 우리가 두고두고 기억해야 할 자랑스런 고대의대 역사에 밑거름이 된 초기 역사 인물들의 이야기를 4편의 시리즈를 통해 소개하고자 한다.

3. 김탁원(金鐸遠:1898 ~ 1939) 김정희(吉貞姬:1899 ~ 1990) 夫妻

玄堂 金鐸遠 선생은 일생을 우리 민족을 위해 살다간 민족 운동가였다. 집안이 가난하여 보통학교밖에 다니지 못했으나 검정시험으로 경성의학전문학교에 합격하였다. 그가 졸업반 때 기미 독립 만세 운동이 일어났고 金鐸遠은 이에 적극 참여하였다. 덕분에 1년 6개월 여의 옥고를 치렀으며 제적당하였다가 다시 복교 조치되어 1921년 2년 늦게 졸업하였다.

졸업 후 그는 곧 신경정신과를 목표로 도입하여 동경의 일본국립 정신병원에서 1년간 근무하였고, 중국 북경 협화병원에서도 근무하였으며 많은 애국지사들과 사귀었다. 金鐸遠은 의학사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최초의 정신과 의사로서 알려져 있다. 그는 역사, 정치 등에서도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고 전해지며 박영효, 이인 등의 정치인들과의 교류도 많았고 민족의 독립과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

1927년 함남 영흥에서 에메친 중독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은 일제 도경찰국 위생과에서 한국인 페디스토타 환자 105명에게 17일간 계속 에메친을 주사하여 5명 사망, 6명 중태, 93명을 마비상태에 빠

뜨린 사건이다. 총독부와 지방 公醫들은 폐렴이 급성으로 변하여 사망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지역의 의사들은 중독사를 주장하였고 동아일보에는 에메친이 페디스 토타에 효력이 있는지를 몰래 인체 실험한 것이라는 의혹을 보도하였다. 그리하여 사회 각계에서 여론이 들끓고 한성의사회를 중심으로 하여 진상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위원회에서는 진상조사를 위해 박승묵, 金鐸遠 두 의사가 파견되어 조사 끝에 에메친 중독사임을 밝혀 낸다. 이로써 영흥, 해남 등지에서 항일 집회가 일어나게 된다.

이후 金鐸遠은 일제 어음 의사단체인 '경성의사회'에 대응하고자 만들어진 '한성의사회'에 2회에 걸쳐 회장으로 활약하기도 했다. 홀 여사가 정년퇴임으로 여자의학강습소장에서 물러나고 미국으로 귀국한 후 1933년부터 강습소 소장을 이어받아서 의학전문학교로의 승격을 위하여 백방으로 애쓴다. 여자의학전문학교로의 승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금의 마련이 급선무였다. 그는 재단법인 여자의학전문학교 기성회를 조직하고 기금모금에 나섰다. 그 일환으로 당시 명망이 높던 仁村 金性洙 선생을 찾아간다. 仁村은 자신은 중앙과 보성을 유지하느라 여력이 없으면서 友石 金種翹 선생을 추천한다. 이런 인연으로 金鐸遠은 友石 선생을 찾아가서 여자의학전문학교 설립에 참여를 설득하게 된다. 이는 고려대학교와 고대의대의 숙명적 인연을 느끼게 하는 역사적 장면이기도 하다. 민족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金鐸遠이었기에 총독부는 그에게 비협조적이었으며, 여자의학전문학교로서의 승격 추진과정에서 그를 배제하려고 하였다. 여의전의 초대 교장을 맡았던 佐藤剛藏은 金鐸遠 선생에게 교무주임 자리를 권하기도 하였는데 金鐸遠의 일제의 반대로 인해 교수로 임명될 수가 없었다. 金鐸遠 선생은 그 후 일본의 침탈이 악랄해지는 것과 의학교육에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된 것으로 인한 울분의 시간을 보내다 1939년 42세의 젊은 나이에 간염으로 눈을 감고 말았다. 그러나 그의 민족을 사랑하고 실천하는 정신은 그를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남아있다. 雲山 吉貞姬 여사는 1899년 서울에서 길현식의 3남매 중 둘째 딸로 태어났다. 吉貞姬는 10대 초반에 아버지를 여의고 조부의 손에서 길러졌다. 조부 길인수는 정3품의 관직을

지낸 분이었으며, 당시로서는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분이였다. 吉貞姬 여사가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조부의 영향 때문이었다. 의학에 뜻을 두어 19세에 동경여자의과대학에 입학하였다. 그녀는 관동대지진을 겪으며, 생명을 구하는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결심을 새로이 한 것으로 전한다. 여자의사가 절실하던 시절 1923년에 동경여자의과대학을 한국인으로서는 두 번째로 졸업하였다. 귀국 이후 총독부 병원에서 1년의 소아과 수련과정을 거쳤으며, 홀 여사를 찾아가서 여자의학교육기관 설립을 모색하고 동대문 부인병원에서 소아과, 산부인과 의사로 활동하였다. 그 성과로 1928년에 홀여사와 함께 조선여자의학강습소를 설립하였으며 부소장을 맡게된다. 홀여사 퇴임 이후에는 남편 金鐸遠과 함께 1938년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가 설립될 때까지 여자의학강습소를 운영하였다. 이후 1964년 은퇴 시까지 吉貞姬는 개업으로서 천직인 직업에 봉사하였다. 1980년에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 吉貞姬 장학금을 제정하였는데, 기초학 교실의 연구를 장려하고 신진교수 양성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장학금을 통하여 매년 1인의 기초의학 연구자에게 해외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0년대 들어서는 임상 연구자에게도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1981년에 "나의 자서전"이 출간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그 동안 묻혀있던 '여자의학강습소' 존재가 다시 조명받게 되었으며 1990년 92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고대의대의 설립과정에서 김탁원-김정희 부처의 역할은 여의사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민초의 요구에 로제타홀이 혼신으로 뿌린 씨앗을 성심껏 물과 자양분으로 키운 것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김탁원-김정희 부처의 노력이 있었기에 友石 金種翹의 기부가 있었으며, 마침내 여자의학전문학교가 싹을 틔울 수 있었던 것이다.



김정희, 로제타홀, 김탁원 (왼쪽부터)

글. 정신건강의학교실 이현정 교수 (안암병원)

인물 포커스

센터 내 종합적인 사무/행정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의과학연구지원센터.

김 석 선생님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업무 소개 포함)

의과대학 의과학연구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 석 이라고 합니다. 제가 센터에서 맡은 업무는 문숙의학관 원형강의실 및 제1의학과 강의실 내 강의용 기자재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센터 내 종합적인 사무/행정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하면서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

일상에서 소소한 보람을 자주 마주치며, 모든 직장인들과 마찬가지로 업무의 결과가 제 자신에게 만족을 느낄 때 보람을 갖습니다.

일하면서 힘든 점은요?

센터의 사무/행정을 하면서 여러 업무를 다양하게 습득하고 실행해야 하는 게 좀 힘든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이 많은 분들의 경험을 배울 수 있고, 저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들도 있어 좋습니다.

고마운 분이 있다면요?

제 투정을 받아주시는 저희 센터 직원들에게 항상 고맙고, 상사로서 업무의 핵심을 알려주시는 과장님에게 감사합니다.

요즘 관심이 가는 분야나 취미는?

등산입니다. 등산을 하면서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건강은 덤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각오?

김 석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업무에 성실하고 일하면서 만나신 분들에게 친절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인물포커스 추천 누구? 이유는?

의과대학 학사지원부 홍지은 선생님을 추천합니다. 강의실 대관 및 인사 관련 업무로 인해 여러 번 마주쳤었는데 항상 웃음으로 받아주시고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열심히 가르쳐 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인물포커스 릴레이

의과대학 연구지원센터 김석 선생님

의과대학 학사지원부 홍지은 선생님

애사하면 이 책은 꼭 읽어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휴양지로만 생각하는 섬 제주도에 '김영갑 갤러리 두모악'이라는 곳이 있다. 이곳은 사진 찍는 일이 좋고 자연이 좋아 제주도와 서울을 오르내리다, 제주도에 매혹되어 섬에 정착하고 한라산, 마라도 등 섬의 곳곳을 누비며 사진을 찍던 김영갑 작가가 루게릭병(근위축성 측삭경화증,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을 진단 받고 점점 굳어가는 근육을 놀리지 않으려고 폐교된 초등학교를 개조해 돌 하나하나 쌓아가며 손수 만든 곳이다. 끼니를 때울 여유가 없어도, 우유 한 잔을 마실 여유가 없어도 괜찮지만 필름과 인화지가 없어 작업을 하지 못하는 서글픈만은 참을 수 없었다는 그가 제주도와 자연에 대한 사랑, 사진에 대한 열정으로 그의 인생을 바쳐 만든 곳이다.

이 책은 그의 제주도의 자연, 사진에 대한 열정으로 지냈던 제주도 생활과 사진을 찍을 때면 떨리기 시작하던 손이 루게릭병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힘든 투병생활 가운데 갤러리를 만들며 죽음에 다가 갔던 그의 기록이다. 밥벌이가 되지 않는 일에 매달려 영혼을 바치는 사람들, 주위의 냉대와 비웃음에도 우직하게 한 길을 고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예술가라는 깨달음과 함께 한 인간이 온 인생을 바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 준다.

의사의 입장에서 그가 투병 말미에 약물치료도 중단하면서 매달린 침술치료나 체질치료가 너무나 안타까웠지만 현재의 의료가 갖는 한계정도 생각해 보게 된다. 또한 이러한 안타까움이 질환의 완치를 이루려는 연구의 힘과 열정이 되리라 믿으며, 무엇보다도 이 책을 통해 내가 진단하는 질환 너머에 있는 인간을 보는 시선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이 책을 읽고, 제주도 김영갑 갤러리 두모악 그가 남긴 작품 앞에 서보자. 그의 영혼을 뿌리째 뒤흔들고 매혹시킨 제주의 아름다움과 함께 쓸쓸하게 홀로 죽음에 가까이 갔던 그의 외로움과 고통을 함께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어떻게 하면 시련을 성장의 또 다른 기회로 만들 수 있는지 자연이 가르치는 지와 내가 죽을 만큼의 열정을 쏟아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떠올려 보게 될 것이다.

그 섬에 내가 있었네

안과학교실 백세현 교수 (구로병원 안과)

인사 동정 및 병원소식

高大의료원, 의료정보시스템 고도화 박차 향후 10년의 편리함 차세대 EMR 개발 순항, 내년 6월 오픈



고려대의료원(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김우경)이 의료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려중앙학원(이사장 김재호)의 50억 원 지원을 받아 올해 초부터 삼성SDS와 함께 본격 시작한 차세대 EMR 구축사업이 내년 6월 오픈 및 적용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무엇보다 구축사업에 고려중앙학원의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큰 역할을 했다. 차세대 EMR 개발사업비로만 50억 원을 지원했다. 재단은 이번 지원뿐만 아니라 과거 처방전달시스템(OCS) 구축부터 화정 연구동 건립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 지원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첨단 의료시스템과 특성화 진료 및 연구인프라, 우수한 교육 시스템을 모두 겸비한 선도적인 의료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향후 10년의 편리함을 만들겠다는 사업목표로 시작한 차세대 전자 의무기록(EMR) 사업은 환자진료를 위한 모든 기록과 자료들을 표준화하고 DB화해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기초의학 연구용 통계자료로 활용토록 하는 등 연구역량 강화와 병원 경영 효율화에도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의료원 역점사업 중 하나다. 이를 위해 의료원은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사전 컨설팅에서부터 구축과정 전반에 이르기까지 관련 전문가들을 집중 투입하는 등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달에는 서식 생성 절차의 일환으로 분석을 통한 표준화 검토 작업이 한창이다. 취합된 서식을 통해 직관적인 화면 구성과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해 더욱 편리한 EMR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빠르고 편리한 진료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임상연구 지원을 위한 표준화 기반 기록 축적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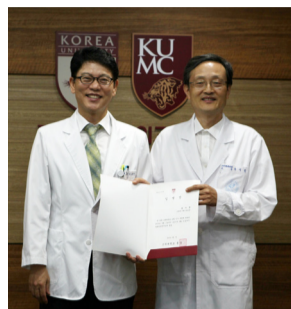
후쿠다 케이지 WHO 사무차장 특강 성료



고려대학교의료원이 9월 9일 유광사홀에서 세계보건기구(WHO) Dr. 후쿠다 케이지(Fukuda Keiji) 사무차장의 특별강연을 개최했다. 지난 7일부터 약 50여 개국이 참여하는 '제2차 글로벌 보건안보구상(GHSA) 고위급 회담'에 참석차 우리나라에 방문한 후쿠다 사무차장은 귀국 전 의료원에서 별도의 특강일정을 잡고 의료진 및 의대생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져 의미를 더했다. 이날 특강은 '감염병과 공중 보건 위기(Emerging Infectious Diseases and Public Health Crisis)'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고려대학교 염재호 총장, 김우경 의무부총장, 국제보건의학회 홍성태 회장, 교원 및 전공의, 간호사 그리고 보건의료분야에 관심 있는 많은 교직원들이 함께했다.

미생물학교실 송기준 교수, 생물안전센터장에 임명

의과대학은 의·생명과학 연구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기 위해 생물안전센터를 설립하고, 9월4일(금) 오후 4시 확장부속회의실에서 미생물학교실 송기준 교수를 센터장으로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고려대학교 기관생물안전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



는 송기준 교수는 이번 센터장 임명으로 학교와 의료원의 생물안전을 총괄하게 됐다. 생명안전센터는 BSL-3(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와 ABL-3(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실험실,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실험실을 비롯한 의료원 내 모든 생물안전 연구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생물안전책임자와 생물안전관리자를 임명하는 등 인력을 관리한다.

정신건강의학교실 이민수 교수, 대한생물정신의학회서 공로상 수상



정신건강의학교실 이민수 교수(안암병원)가 지난 9월 4일 JW 메리어트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대한생물정신의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추계학술대회에서 생물정신의학 분야에 많은 연구업적을 남긴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상을 수상했다. 그동안 정신의학발전을 위해 연구에 매진하며 국내 정신의학분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린 이민수 교수는 이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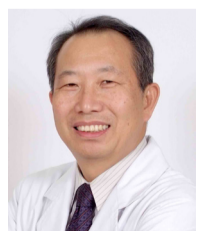
비뇨기과학교실 강석호 교수팀, 국제학회에서 최우수학술상 수상 방광암 로봇수술 및 총체내요로전환술의 우수성 규명



강석호 교수, 편중현 교수 (왼쪽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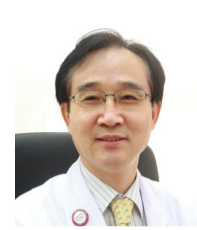
강석호 교수팀(편중현, 김형근, 조석, 강성구, 강석호 교수)은 지난 9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대구 엑스코에서 진행된 ELSA 2015에서 'Robot-Assisted Radical Cystectomy with Total Intracorporeal Urinary Diversion : Comparative analysis with Extracorporeal Urinary Diversion (로봇이용 근치적방광절제술 및 총체내요로 전환술: 체외요로전환술과의 비교분석)'라는 제목으로 초록논문을 발표해 최우수학 술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우수 학술상(Best Scientific Awards)은 한국,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등 아시아-태평양 30개 이상의 다수 국가들이 학회에 제출한 800여개 초록논문 중 최우수 논문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치과학교실 신상완 교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수상



치과학교실 신상완 교수(구로병원)가 8월 28일 통상산업자원부에서 주최한 '2015 MMR(Motie Medical device R&D Fair) 산업기술 의료기기 R&D 기술교류 한마당'에서 의료기기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상을 수상했다. 신상완 교수는 2000년도부터 치과임플란트 및 골이식재 등 다양한 치과 의료기기의 개발 및 임상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있으며, 현재 의료기기 상생포럼의 명품화연구회인 신기술치과기기연구회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특히 의료기기분야 산업 발전을 위한 산학연 상생협력 방안 도출로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장관표창을 수상했다.

핵의학교실 최재걸 교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수상



핵의학교실 최재걸 교수(안암병원)가 8월 21일 오전 9시 더케이호텔에서 개최된 제 8회 세계인정의 날 기념식에서 산업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최재걸 교수는 병원의 검사분야의 질관리를 표준화하는 메디컬 시험기관 인정 제도인 ISO 15189의 제도 도입에 힘써 메디컬 기관인정분야 선진화를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 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주인공이 됐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위원회에서 진행한 이번 기념식에서는 2015년 세계인정의 날을 맞이하여 국내 시험인정 증산업발전에 기여가 큰 단체 및 개인을 포상했다.

연구분야 트리플 크라운과 융합중개 연구지원실 합동워크숍 개최



'안암병원 소속 교직원의 연구지원 및 활성화 워크숍' 개최를 위해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연구분야 네팀이 모였다. 안암병원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구중심병원으로서 연구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국책과제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연구중심병원 진흥사업단,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임상시험센터(CTC), 고려대학교병원 의료기기상생사업단(MeDIC)과 융합중개 연구지원실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본관과 홀리데이인 성북에서 8월 5일, 12일, 19일 총 3회에 걸쳐 워크숍을 진행했다. 3회에 걸쳐 총 150여명의 교직원이 참석하여 각 사업단의 연구진행 상황과 결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듣고,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지만 선뜻 다가갈 수 없던 의료진과 연구 분야 실무진들이 만나 논의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도움을 주기로 약속하며 행사를 마쳤다. 앞으로 각 사업단들은 교직원들이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길을 모색할 것이며, 빠른 소식 전달을 위해 연구를 주제로 다룬 뉴스레터 'Research News Letter'가 9월말부터 발행될 예정이다.

※ 뉴스레터 희망 신청 : werichae@gmail.com

FAME 의학교육세미나

Faculty Academy for Medical Education

날짜: 10/7, 10/21, 11/11, 11/25, 12/9, 12/23 (2, 4, 4주 수요일, 총 6회)	
시간: 오후 12시 10분 ~ 1시 (50분)	
장소: 안암/기초: 문승의학관 1층 원형강의실	
구로: 대강당, 8층 2회의실, 안산: 대강당, 대회의실	

1차 10/7	KU 학습관리시스템(Black-Board) 활용 경험	엄창섭 (고려의대)
2차 10/21	임상실습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박훈기 (한양의대)
3차 11/11	의학교육 질 보장의 국제적 동향	안덕선 (고려의대)
4차 11/25	임상표현 중심 교육 사례: 충남대	정성수 (충남의대)
5차 12/9	역량바탕 전공의 교육과 평가	이영미 (고려의대)
6차 12/23	KU 진료수행능력 증진 프로그램(SPP) 운영 성과	채성원 (고려의대)

주최 / 주관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의인문학교실
 문의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02-2286-1124, kimminsun@korea.ac.kr)